

관세청 통관국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현장점검

- 새롭게 배치된 엑스레이(X-ray) 판독요원 격려,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당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7월 14일(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동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운영 현장을 점검하였다.

*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완료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수시직제 정원 확보를 통해 신규 채용되어 7월 6일(월)부터 현장에 배치된 엑스레이(X-ray) 판독 요원의 임용을 축하하고, 마약 차단을 위한 엑스레이(X-ray) 판독 및 개장 검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국장은 “2차 저지선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은 초기 적응 단계를 지나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인 마약 차단망을 구축·운영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민경욱 (042-481-7832)